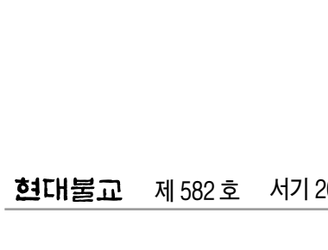
천룡사지 삼층석탑 탑신석 찾았다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 1188호)의 탑신석이 발견돼 석탑의 원형 복원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 윤근일)는 6월 7일 '경주남산(사적 제311호) 천룡사지 삼층석탑 주변 배수로 정비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1층 탑신석의 결실된 부분을 현대 축대석 사이에서 발견했다



고 밝혔다.

새로 발견된 1층 탑신석의 모서리 부분은 탱주를 기준으로 경사지게 깨어졌으며, 크기는 높이 39.0㎝, 너비 38~41㎝, 탱주너비 20~21.5㎝로 암질은 흑운모가 많은 알칼리화강암이다(사진의 흰원안). 깨진 표면에는 석탑의 1층 탑신석과 동일한 장석띠를 이루고 있으며, 결합 시 정확하게 접합되어 동일한 부재임이 확인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장미 학예연구사는 "향후 천룡사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천룡사지 삼층석탑에 대한 원형복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주한미군기지 등 군부대내 문화재조사 5년 계획 착수

주한미군기지 등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조사가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군부대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실시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군산 공군기지' '캠프워커' 등 10개 주한미군기지 약 967만 평과 '계룡대' '자운대' 등 우리 군 주둔지 4곳 약 1,414만 평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8개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노병철 기자

문화재 사기범 '들방조' 주의

"골동품 고가에 팔아주겠다" 위탁받아 횡령
올들어 전북 · 경남지역서만 10여건 접수

'들방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들방조란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위탁 받아 횡령하는 사기조직을 지칭하는 순 우리말이다.

들방조는 왕초격인 전주(장물아비)와 행동대(하수인), 물건을 섭외해 오는 거간꾼으로 조직돼 있다. 들방조에 의해 골동품과 불교미술품 등을 불법 횡령 · 유통시켜온 사건이 올 들어 전북과 경남 지역에서만 10여건 이상 접수됐다.

실례로 지난 달 전북 전주에서는 각종 불교문화재를 횡령해 내다팔려던 5인조 들방조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청화 스님의 8폭 반야심경병풍을 비롯해 각종 불교관련 미술품과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모란문백자매병 등 6점을 일본으로 빼돌리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불교미술 수집가인 김원기(전주시 인후동 · 55)씨에게 소장한 불교 미술품을 시가보다 5배 높은 값에 매입해 주겠다며 속여 김씨에게 청화 스님의 8폭 병풍과 불교미술품 등을 위탁받아 달아났다.

이렇게 들방조에 의한 문화재 피해액은 연간 1백억원에 이른다. 현재 들방조 조직원은 전국에 걸쳐 약 200 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문화재 절도 및 도굴범들과 연계돼 있어 문화재를 가져다주고 자금을 변통해 쓰면서 지속적인 사기행각과 절도 및 도굴 행각까지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 김규남 계장에 따르면 들방조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다. 김 계장은 "들방조는 범행대상을 파악해 거간꾼이 문화재를 위탁받아 오면, 행동대가 나서서 인수받아 장물아비에게 물건을 넘기고 10부 이자로 돈을 차용해 쓰며 이러한 횡령이 사건화 될 경우 유령과 같은 바지(사건과 관련 없는 가상인물)를 내세워 바지에게 주었다고 뒤집어 씌워 그를 잠적시켜서 사건을 미궁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들방조에 의해 일본으로 밀반출 될 뻔한 청화 스님의 8폭 반야심경병풍. 앞면엔 반야심경이, 뒷면엔 난(蘭)이 쳐져 있다.

문제는 이 들방조가 더 조직화 ·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 한국에서 들방조에게 사취당한 청화 스님의 8폭 병풍이나 불교문화재가 장물아비의 하수인 김모씨가 북한에서 나온 문화재로 위장해 조선족 최모씨와 함께 서울 문화재 암시장에서 수차례 접선을 시도 한바 있다. 또 일본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허종행 사무관은 "들방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와 미술품의 장물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공개함은 물론 문화재 장물에 대해서는 선의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화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종립학교 종교교재 보완 필요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재는 내용과 체재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현행 종교교과서인 <종교(불교)>는 △목차구성의 수평적 재구성 △현대적 감각의 언어 사용 △문체의 통일과 윤문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국대 김용표 교수(교수불자연합회장 · 사진)는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6월 3일 혜화동 가톨릭대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종립학교 종교교과서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교수는 '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간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상'이란 논문에서 '불교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난제인 종파교육을 어떻게 교육적 차원의 종교성 교육으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

또 김교수는 논문을 통해 "종립학교에서 안고 있는 종교교육의 모호성과 현실적 고민은 종교교육과정과 교재의 재구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천태문화硏, 17일 학술대회
관문사서 '법화경 연구' 주제로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재창)은 '2006 법화경 연구 특집 춘계학술대회'를 6월 17일 서울 관문사에서 개최한다.

'법화경의 현대적 고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법화경>연구에 대한 현대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되는 논문은 동국대 우제선 교수의 '법화경의 범어필사본과 현대학계의 연구동향' 중앙승가대 서인열 교수의 '법화경의 포교방법 연구' 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2>

미래 에너지

인류는 항상 미래를 걱정해 왔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인력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앞으로 환경과 에너지는 미래사회의 경제, 과학기술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화석연료(석유)의 매장량은 향후 50년 안에 바닥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환경과 그 폐기물은 기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35%이상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나, 매년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양이 석유 소비량보다 작다는 점에서 석유 고갈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재 매년 개발되는 석유가 미국 일년 소비량보다 적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환경위험 · 사후관리비용 높은 원자력 대신
태양 · 바람 이용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자

석유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열강과 약소국간의 '석유전쟁'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더 그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라크 전이나 러시아와 체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그 좋은 실례다.

대체에너지는 원자력, 수소 등과 같이 석유를 대체할 자원이고 재생에너지는 천연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조력, 수력, 지열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석유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원자력 발전이 핵 폐기물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배출함에 비해서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전기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에 비해 고효율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및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간접비용 등을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다. 또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핵을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핵 폐기물의 방사능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험과 부대 비용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는 환경에 악영향이 없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은 매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만배가 넘는다.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태양전지(solar cell)는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된 이미지 센서와 같은 원리로 빛을 전기로 바꾸어 준다. 풍력 장치 또한 바람에너지로 날개를 회전시켜 발전기를 돌리는 장치이다.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 그리고 새들에게 방해를 주는 등 단점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음식 못지않게 에너지를 버리면서 산다. 사찰의 음식 공양은 전세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음식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서 마음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작게 쓰는 방법을 개발해서 세계에 전파하도록 하자.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인류에 선사하는 노력이야 말고 보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 일 명 상

부처님 정통 수행법
Sati 수행 Workshop

올바른 부처님 수행법의 정립이
요청되는 이즈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전문가
(교수 · 대학원생 · 불교단체임원 등)를 위한
수행 workshop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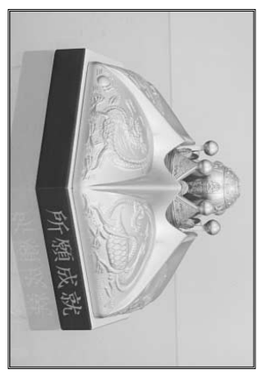
◆ 장 소 : 다보산 반냐라마(부산)
◆ 대 상 : 스님 및 전문가
◆ 참가비 : 10만원, 학생4만원
◆ 준비물 : 가사, 일반인 수행복 지급
◆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本願)스님
◆ 내용 및 상반기 일정

회차	일시(17시~15시)	내 용
4회	6월 20일~22일	· 마음구조와 마음작용 · Sati수행의 이론과 실기 · 간화선 · 묵조선의 이론과 실기 · 의학, 상담학, 심리학, 뇌과학, Sati수행 비교 · 요가와 불교수행 차이점 비교 · 부처님과 프로이드 마음이해비교 · 수행 프로그램 개발 (수련회, 템플스테이, 법회등)
5회	23일~25일	
6회	7월 11일~13일	
7회	14일~16일	
8회	8월 16일~19일	
9회	9월 19일 ~ 21일	
10회	22일 ~ 24일	
11회	10월 17일 ~ 19일	

※ 짝수 회는 5년 이상의 출가수행자 · 8회는 학인스님 대상입니다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011-1700-2841, 055)331-2841
Sati School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결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